

여름철 양봉관리



이성배
한국 양봉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

우리 양봉인은 유밀기에는 수밀에 다망하지만 유밀기가 끝나면 봉군관리에 태만하기 쉽다. 유밀기 후 밀원이 갑자기 감소하는 지방이 많고 과도하게 채밀된 경우에는 식량이 부족하여 봉군의 세력이 쇠퇴하게 되는 등 실로 위험한 현상을 초래하기 쉽다. 되게 추운 지방에 있어서의 여름철은 따뜻한 지방의 봄철 유밀기에 못지않게 벌들의 활동이 왕성하여 이에 따라 봉군관리도 상당히 용이하다.

이와 반대로 따뜻한 지방에 있어서의 여름철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봉군 관리상 어려운 계절의 하나가 된다. 또한 이는 식량이 없어 굶어 죽어도 한번 소상내의 저밀이 소비된 봉군은 여간하여 저밀을 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유밀이 끝나면 봉군관리 소홀로 인해서 도봉의 발생과 분봉으로 양봉의 실패를 초래하는 일이 많은 시기가 여름철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하여 이때의 봉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 (1) 여름철은 대부분의 지방에서 밀원이 결핍하는 시기이다.
- (2) 유밀 말기에 과도한 채밀로 인하여 식량이 결핍되기 쉬우며 또한 봉군이 쇠약해지기 쉬운 시기이다.
- (3) 해적이 많아 봉군의 피해가 많은 시기이다.
- (4) 심한 더위로 인하여 봉군이 도망하거나 이외의 분봉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이며 또한 우기가 계속되어 약간의 밀원이 있어도 수밀 작업을 하지 못하는 시기이다.





(5) 상기한 여러가지 현상이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봉군에 대한 인위적인 간섭이 심해지는 시기이다. 이상 여러 가지 점을 들었지만 식량이 되는 꿀의 저장만 충분하면 어려운 고비는 쉽게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름철을 무사히 넘기려면 유밀기에 채밀을 적게 하고 꿀이 저장된 소비를 계상에 충분히 넣어 식량을 조성하여 굶이 이상적이다. 봉군에 늘 저밀을 유도하도록 하여 굶은 비단 월하기 만이 아니고 1년을 통하여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1. 여름철 봉군관리의 중요성

우리 양봉도 기업이라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양봉을 어느 방향으로 경영하여야 할 것인지 양봉인은 아카시아 꽃이 지기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즉 딸기밭 화분 매개벌이나 종봉 판매를 하기 위하여는 아카시아꽃이 지자마자 여왕벌이 출방할 수 있도록 여왕벌 생산에 힘써야 하겠으며 로얄제리를 주로하기 위하여는 밤꽃이나 대추, 때죽, 가죽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하겠다. 화분채집을 위하여는 짙레, 개웃나무, 다래가 많은 지역이 많은 화분을 받을 수 있다.

여름철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시원한 그늘속이 좋으며 산란력 또한 30%정도 차

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늘 속에서 관리하여야 되겠으며 장마때도 효과를 보게된다. 집 근처에 자기땅이 있을때는 양봉사를 짓는것도 여름별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아카시아 꽃이 지고나면 산란력이 왕성해지게 되는데 이때가 봉충이 제일 적은 시기이다 보니 진드기 약제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진드기 약으로는 생물공학적인 방법 즉 수벌방을 이용하여 진드기를 잡는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 개미산과 젖산을 이용하여 진드기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개미산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사용하여 왔으나 산의 농도 조절과 사용방법 잘못으로 실패한 사항이다.

개미산은 단기 처리 방법과 장기 처리 방법이 있는데 단기 처리 방법을 권장하고 싶으며 현재 여러 업체에서 기구가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니 잘만 사용하면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개미산과 젖산의 사용방법은 다음호에 상세히 올리기로 하고 특히 우리 양봉농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여름에 진드기를 일시에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진드기 밀도만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진드기 잡으려고 약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별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검정도 하지 않은 합성화학약제 특히 중국에서 수입한 약제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농약 잔류로 인하여 2006년도와 같은 파동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무밀기이다 보니 일주일에 한번정도씩 사양을 시켜서 충분한 식량 공급을 해주어야 한다. 6월 하순 부터 7월 하순 사이 매년 장마가 찾아오기 때문에 빗물이 벌통에 스미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겠으며 하천 근처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낙뢰가 예상되는 지역 등은 피해야한다. 두꺼비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녁에 한번씩 소문앞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습도가 높아 석고병 발병율도

높으므로 착봉을 좋게 관리해야한다. 부저병 발생도 잘되므로 환기에 신경을 써야하며 부저병이 발병 되었을 때는 항생제를 사용하되 옥시데트싸이클린 계통의 약제를 사용하고 다른 계통의 약제사용은 금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장마철이나 무화기때는 화분공급을 해주어 산란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으며 도봉 발생도 주의하여야 한다. 여왕벌은 매년 갱신하는 것이 분봉열도 적고 산란력도 우수하므로 5~6월경에 가급적 갈아주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8월중순안에 끝내야한다. 무더운 여름철은 겨울철과 반대로 기온이 높고 벌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야외에는 밀원도 아주 적어 꿀벌은 침체상태에 머물며 무용이된 숫벌을 배격한다.

※월하기의 밀원으로는 거지등굴, 호박, 외류, 옥수수(화분), 해바라기 등이 있어 서늘한 곳에서는 계속 육아가 된다. 또 육아 중에는 새 유봉으로 구성된 강군이 유리하다. 즉 강군은 육아에 있어서 개체별 부담이 적어 육아로 인한 단명을 면할 수 있고, 또 무밀량은 많으나 반대로 소모량이 적어 유리하다. 그러므로 과소군은 육아가 곤란하므로 일찍이 합병시킨다.

※이 시기에는 종종 육아가 중지된다. 이 시기에 육아가 장기간 계속 중지되는 상태에 놓이면 강군도 급격히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저밀량을 충분히 보유시켜야 한다. 만약 저밀량이 부족하면 설탕액(1:1의 용액)을 사양 하여주고 육아를 하면 인공대용 화분도 공급하여준다.

※이시기에 사양을 하면 도봉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사료가 부족하면 도망을 하게되니 해적의 구제와

봉장에 그들이 지게하여 환경을 개선하여 주는것도 매우 중요한 관리이다.

2. 장마철의 봉군관리

5월의 아카시아 유밀 후 밤꽃에 접어들면 장마철이 다가와 채밀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장마기인 6월은 더위가 적고 꽃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벌들은 활기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과잉 육아를 하는 것이 많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이 시기를 이용하여 조소, 여왕벌 양성, 왕유, 숫벌 생산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우천을 이용하여 분봉군에 식량이 부족하면 급이를 해주어야 한다.

구왕을 신왕으로 갱신하고 봉군의 증식이 필요하면 여왕벌 양성을 하여 산란육아를 촉진시켜 분봉을 시킨다. 이와 반대로 7월 상순경 약소벌 육아 저밀 등을 표준 봉군에 도달시킨다.

계상군은 육아를 제한하지 않은 봉군은 40,000~50,000마리의 강대군을 유지한다. 유밀기에 들어 과잉육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란을 제한하고 저밀을 충분히 남겨두어 가을에 가서 2군으로 분할하여 2군으로 만든다. 장마기간 중에는 연일 강우로 벌통이 습윤하며 벌의 활동이 약하고 저밀량이 부족하면 아사하는 경우가 많다. 해가질 무렵 수문 앞에 두꺼비 개구리등이 모여들어 벌을 잡아 먹으며 또 처녀벌의 교미 비행시 새나 잠자리 등에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을 특히 유의 하여야한다.

3. 한여름에 대용화분 공급

부화직후의 애벌레는 3일간 왕유를 먹이나 4일째 되는 날부터 3일간은 꿀과 꽃가루를 반죽한 꿀떡을 먹인다(일벌유충).부화한지 3일 이내의 왕유가 공급되는 유충에는 진드기의



기생도 없고 초코병의 번식도 없다. 무더위가 극심하면 여왕벌의 산란이 중지되지만 먹이가 부족하면 키우던 유충을 끌어낸다. 꿀벌은 꽃가루가 부족하면 먼지 등이 미세한 가루도 반입해 온다. 물론 먹이가 될 수 없다. 꽃가루는 유충뿐만 아니라 유봉의 먹이로도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무밀기에는 당액과 대용화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한 여름철에도 방서에 대비하여 당액과 대용 화분떡을 공급하면 산란과 육아가 계속된다. 월동군은 9월부터 양성하여야 하나 남부지방은 15일정도 늦어도 된다.

4. 월하포장

스티로폴로 외부 포장이 된 벌통은 겨울에도 그대로 월동 시킬 수 있고 여름에도 그대로 월하시킬 수 있다. 스티로폴의 역할은 온도의 변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름철 혹서에도 태양열로 벌통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벌통의 외부를 스티로폴로 포장하면 태양열이 벌통 안으로 들어가는것을 방지할수있고 여름철에도 여왕벌의 산란이 계속된다. 벌통안의 습기는 봉세에 따라 소문을 조절해주면 벌들이 선풍하여 제거한다. 소규모로 고정양봉을 하는 양봉인은 50mm스티로폴로 벌통을 덮어주면 방서도 되고 비 가리게도 된다. 월동 시 벌통을 짚으로 싸서 매거나

벌통내의 공간에 왕겨등 보온물을 넣지 않고 벌통전체를 스티로폴로 포장하고 벌통내부공간에도 아무것도 넣지 않고 보온판 대신 스티로폴로 포장하여 월동시키는 양봉농가가 많다. 스티로폴로 외부 포장이 된 벌통은 겨울에도 그대로 월동시킬 수 있고 여름에도 그대로 월하 시킬 수 있다. 여름에도 벌통을 포장 해주면 외부온도를 차단하여 월하 시킬 수 있다. 스티로폴의 역할은 온도의 변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름철 혹서에도 태양열로 벌통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5. 월하기의 봉군관리

무더운 여름철은 겨울철과 반대로 기온이 높고 벌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야외에는 밀원도 아주 적어 꿀벌은 침체상태에 머물며 무용이 된 숫벌을 배격한다. 월하기의 밀원으로는 거지덩굴, 호박, 외류, 옥수수(화분), 해바라기 등이 있어 서늘한 곳에서는 육아가 계속된다. 또 육아 중에는 새 유봉으로 구성된 강군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과소군은 육아가 곤란하므로 일찍이 합병 시킨다. 또 이 시기는 종종 육아가 중지된다. 이 시기에 육아가 장기간 계속 중지되는 상태에 놓이면 강군도 급격히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저밀량을 충분히 보유시켜야한다.

만약 저밀량(꿀)이 부족하면 설탕액(1:1의 용액)을 사양하여 주고, 육아를 하면 인공대용화분도 공급하여 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사양을 하면 도봉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사료가 부족하면 도망을 하게 되니 해적의 구제와 봉장에 그들이 지게하여 환경을 개선하여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관리이다. **양봉**